

아시아연합 실현 방안 제안서

-아시아 차 관리 협의체-

ATMA(Asian Tea Management Association)

팀명 : SS2015

팀원 : 배성환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일본통상학과
010-6476-5439 / wild032@nate.com

오수정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일본통상학과
010-8709-3511 / crystal3753@naver.com

1. 서론

역사적으로 범아시아 통합을 위한 시도는 관 주도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노력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최근 중국 주도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발족이 결정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요원하다고 본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에 산적 되어 있는 경제적 차이, 문화 및 역사적 차이에 대한 긴밀한 이해 없이 막연한 아시아 통합의 그림만 그려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분야별, 단계적 아시아 통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SS2015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된 분야에서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주제에 접근하였다. 우리가 생각한 아시아를 묶을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공통된 분야'에서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았다.

일단 '공통된 분야'로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차(TEA)문화이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차 중 아시아산(産)이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소비 또한 70%이상의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차 생산·소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아시아 각국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국만의 차 문화와 예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기에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차'는 실생활과도, 문화적으로 밀접한 위화감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시아의 연합과 밀접한 가치는 바로 '경제적 이익'이다. 현 국제 정세에 있어서 각 국가의 결집과 연합에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유인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 비(非)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기에 있는, 혹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에 진입하여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 또한 해당되는 공통의 가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 하에 우리 SS2015는 아시아의 '차 시장'에 관련된 이익을 보전 및 증진시켜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 차 관리 연합"(Asian Tea Management Association, 이하 ATMA)의 창설을 주창하는 바이다.

2. 문제 상황

아시아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생산·소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차 생산, 판매는 미국, 유럽의 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서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차 생산의 36.8%, 소비의 30%를 기록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차 생산 및 소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들의 차 시장점유율은 겨우 19%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1%는 트와이닝, 셀레스셜 시즈닝스, 립튼 등의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중국 뿐 만이 아니라 인도의 아삼지방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아시아 차 생산 국가들 또한 생산물이 자국의 기업에 의해 유통되는 구조가 아닌 메이저 차 기업들에 납품된 이후 재차 자국 내로 역수출 되는 왜곡된 체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재로 인하여 아시아의 차 시장은 총체적인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차 재배 농가들은 메이저 차 기업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예속되고, 아시아의 차 소비자들은 이러한 메이저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으로 인하여, 생산단가와외의 괴리가 큰 독점 가격으로 차

를 구매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인한 이득은 차 재배 농가들이 아닌, 중간에 존재하는 메이저 독·과점 차 생산 및 유통기업들이 독점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는 아시아 차 재배 농가들의 경제적 예측을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아시아 차”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상징성과 이미지 또한 탈색되어버렸다.

일례로서, 아시아 아삼지방, 방글라데시의 차 플랜테이션 농가들의 임금착취, 아동노동 착취는 사회고발 미디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적이 있을 정도로 소규모 농가 및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아시아의 자산인 차 생산·판매 시장은 메이저 차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며, 현실적으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란, 아시아 차 재배 농가 및 판매 유통기업들의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해주는 기구의 설립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예측당한 아시아의 차 생산 및 판매시장의 이익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는 차 시장의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아시아 차 문화권”이라는 위상을 높이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ATMA의 구조

ATMA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뉜다, 일단 현 시점에서 차 생산 및 수출이 많은 아시아 역내권 국가들인 ‘주도적 참여국’과, 가입 시점부터 자국 내의 차 생산을 진흥시키고 받을 맞추어 갈 ‘동반적 참여국’으로 구성된다. 주도적 참여국으로서 현 시점에서 이미 풍부한 재배 면적이 확보되어 있고 판매 시장의 크기 또한 충분한 동북아3국 + 인도, 스리랑카를, ASEAN 및 가입을 원하는 주변국들이 동반적 참여국으로서 ATMA를 구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케냐 등의 차 수출 규모가 큰 비(非)아시아 국가들과의 부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전 세계적인 차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아시아권의 차 상품가치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ATMA 운영방안

압도적으로 많은 차 생산량과 소비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시아에는 차에 관련한 제대로 된 어떠한 기구나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던 와중에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연맹(FNC) 대한 정보를 접하고 FNC의 시스템을 아시아의 차 관리 협의체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ATMC의 기본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부착하고 국제시장에서 회원국의 차를 ATMA가 보증한다. 로고를 통한 차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모든 차 농가의 수확물에 대해서, 공정하면서도 투명하게 국제 시세에 맞추어 완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구매 포인트를 국가별로 적용함으로써 각 지역의 농가들로 하여금 최고의 가격을 받기 위한 경쟁을 유발한다. 이런 방식으로 차 생산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가격을 받게 하고 국제교역의 투기꾼이나 중개인으로 부터 차 생산 농가를 보호한다.

둘째, ATMC는 아시아 차 기금(Asian Tea Fund)을 운영한다. 이 기금은 회원국의 차 생산자의 소정의 기여금과 판매금, 그리고 각 국 정부로부터 얻은 자원과 고객들이나 국내외 사업 파트너의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자금의 두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데, 우선 이 차 재배의 R&D에 투자된다. 우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일본의 ‘와규’와 같이 상품 및 브랜드의 고급화를 병행 추진하는데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사용 목적으로는, 차 생산자 및 생산 희망자들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저금리로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하여, 차 재배조건은 좋으나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시도조차 못하는 네팔 등의 국가들의 차 생산 산업을 장려한다.

셋째, 가치가 조명되지 않거나 저평가된 차들을 발굴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아시아 차 경쟁 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농가 측에서도 자발적인 연구 및 품질 개발에 나서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농가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ATMA차원에서 세계시장에 적극적인 홍보를 보장한다.

5. 결론 및 전망

이상 ATMA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직, 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안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아시아연합에 ATMA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ATMA의 발족 및 운영을 통하여 아시아의 차 시장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진정한 연합을 도모한다. 또한 “아시아 차”가 지니는 상징성과 문화를 보전 및 발전시켜나가며 글로벌 사회에서의 아시아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정승호, 《티소물리에 이해3》, 한국 티 소물리에 연구원, 2015
- 2) FNC 공식 홈페이지, www.federaciondecafeteros.org
- 3) Gethin Chamberlain, <How poverty wages for tea pickers fuel India's trade in child slavery>, The observer (2013.07.20.)
- 4) Slideshare, 《Trend analysis of the Chinese Tea Industry 2012-2013》 (2013.12.10.)
- 5) Youtube, <Assam's modern slaves: the real price of a cup of Tetley tea | Guardian Investigations>, (2014.03.03.)
<https://www.youtube.com/watch?v=63GxNvOfSkE>
- 6) Youtube, <From Farm to Cup: A Tea Farmer's Perspective >, (2012.10.17.)
<https://www.youtube.com/watch?v=9ZnfeauXbgk>
- 7) Forum for the future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orumforthefuture.org/>
- 8) Euromonitor international 공식 홈페이지, <http://www.euromonitor.com/>
- 9)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공식 홈페이지, <http://country.eiu.com/>